

양보 없는 여야... 꼭 막힌 정치개혁

당리당락 속 정개특위 인선·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 시한 넘겨 선거제 개편 '공염불' 우려... "입법기관이 법 어긴다" 비판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개혁과 제인 선거제도 개편이 물 건너가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법정 정개특위 인선 시한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 시한을 모두 넘겨 국회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여야의 협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공히,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 구성을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패키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뤄 최종 합의가

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핵심인 정개특위 구성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여야가 합의할 때 정개특위는 '민주 9명·한국 6명·바른미래 2명·평화화정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한 것과 맞물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손잡은 평화화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지난한 협상을 통해 '민주 8명·한국 6명·바른미래 2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들어가기로 한 만큼 남은 비교

섭단체 1명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당 소속 위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양보하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추천한 비교섭단체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심상정 의원이 진보 성향인 만큼 한국당이 나머지 1명의 교섭단체 의원을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정개특위와 같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회법 제48조4항에 따르면 특위 소속 위원 선임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7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정 시한은 이미 한참 지났다.

또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개월의 열흘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위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2020년 4월 15일이 21대 총선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18년 10월 5일까지 선관위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보하고, 10월 15일부터 선거구획정위가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소관 특위인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은 이미 정해진 시한을 넘겼고, 기한 내 선거구획정위 출범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국보법 폐지 주장 아니다"

본말 전도 오해... 평화협정 전 제도·법률 개선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장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서 "가능,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 제가 20년 살것 같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평양에서 '살아있는 한 제대로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장기 집권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 집권이라는 말은 독재정권 하에 부당하게 법제도를 뛰어넘었던 것인데 정권 재창출로 네이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3주간 국감 대장정 ... 여야 기싸움 고조

문제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여, 평화·민생·개혁 기초 야, 경제 정책 맹공 예고



준비 분주 2018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출청사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배분하는 등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한 해 문제인 정부가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해 공개 감사에 나선다.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진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제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경제 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들은 당력을 모두 집중, 문제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과

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제인정부의 무능·무모·비감·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뜻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북한 교류협력사업 재개 환영"

민주당 광주시장 성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광주시남북교류협회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에 관한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영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 구성, '남북수영대회 및 한민족 청년

축전' 개최를 제안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은 "지역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광주시의회, 정당, 시민,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상임이사)는 지난 4~6일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민족통일대회 참가차 평양을 방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성위원장 백혜련·노인위원장 선진규

민주, 청년·농어민 등 전국위원장 8명 선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노동·농어민위원장과 을지기는민생실천(을지로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장 등 전국위원장 8명을 선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위원장에는 백혜련 의원이 단일 후보로 출마해 97.4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노인위원장에는 선진규 고문, 청년위원장에는 장경태 전 청년위 수석부위원

장, 대학생위원장에는 전용기 전 대학생 위 부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 노동위원장에는 박해철 한국노총 부위원장, 농어민위원장에는 위성근 의원, 을지로위원장에는 박흥근 의원, 사회적경제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이 각각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해 장애인위원장도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사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4중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 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7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및남골포 1300기 토지3600㎡ 매매가 8억5천만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 에듀센터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영광국제캠퍼스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파격가 임대!! ▶ 권리가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임대가 평균 600만원(전세가능)

1층 임업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사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종호